

2010년 2월

교육학석사 (미술교육) 학위논문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확장된 소묘지도 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최 가 은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확장된 소묘지도 방안 연구

- A Study of Elaborated Drawing Instructions on a
Middle School Art Education -

2010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최 가 은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확장된 소묘지도 방안 연구

지도교수 조 윤 성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최 가 은

최가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崔 英 勳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陳 元 章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趙 允 晟 (인)

2009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ABSTRACT	v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2
II. 중학교 미술교육에서 소묘의 이해	3
1. 소묘의 개념 및 의의	3
가. 소묘의 개념	3
나. 소묘의 교육적 가치	6
2. 중학교 소묘 교육의 현황	10
가. 소묘 내용 분석	10
나. 중학교 소묘 교육의 개선방향	15
1) 중학교 소묘교육의 현황	15
2) 개선방향	19
III. 소묘 지도 방안	22
1. 확장된 소묘지도 방안	22
가. 흥미 유발을 고려한 소묘지도	23
나. 자기표현을 위한 소묘지도	25
다.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한 소묘지도	27
2. 구체적인 수업 지도안	30

가. ICT를 활용한 소묘 개념의 이해	30
나.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한 표현	33
다. 쉽게 이해되는 입체	35
라. 컴퓨터를 이용한 소묘	38
마. 지위가며 배우는 명암 표현	41
바. 자동기술법을 활용한 창의력 표현	44
IV. 결론	47
참고문헌	49

< 표 목차 >

< 표 1 > 소묘교육의 목표	10
< 표 2 > 소묘부분 교과서 분석	11
< 표 3 > 중학교 교과서 소묘 쪽수 분석	12
< 표 4 > 지학사 교과서 분석	13
< 표 5 > 교학연구사 교과서 분석	14
< 표 6 > 대한교과서 분석	14
< 표 7 >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과서 분석	15
< 표 8 > ICT를 활용한 소묘 이론수업의 예	28
< 표 9 > ICT를 활용한 감상을 통해 소묘 이해 교수·학습 지도안 ..	32
< 표 10> 프리핸드 드로잉 교수·학습 지도안	34
< 표 11> 쉽게 그리는 입체 교수·학습 지도안	37
< 표 12> 컴퓨터를 이용한 소묘 교수·학습 지도안	40
< 표 13> 지워가며 그리기 교수·학습 지도안	43
< 표 14> 마음으로 그리기 교수·학습 지도안	46

<그림 목차>

< 그림 1 > 작품 P-2, 김종영	31
< 그림 2 > 자화상, 산	31
< 그림 3 > 프리핸드 드로잉1, 학생작품	34
< 그림 4 > 프리핸드 드로잉2, 학생작품	34
< 그림 5 > 원기둥 응용하여 사물 그리기, 학생작품	37
< 그림 6 > 육면체 응용하여 사물 그리기, 학생작품	37
< 그림 7 > 그림판을 이용하여 그리기 1, 학생작품	40
< 그림 8 > 그림판을 이용하여 그리기 2, 학생작품	40
< 그림 9 > 손 그리기, 학생작품	42
< 그림 10 > 지워가며 손 그리기, 학생작품	42
< 그림 11 > 갈등, 학생작품	45
< 그림 12 > 즐거움, 학생작품	45

ABSTRACT

A study of elaborated drawing instructions on a middle school art education

Choi ga-eun

Advisor : Prof. Yoon-sung Cho Ph.D

Major in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Recent admissions of art colleges in Korea showed us that public and cram schools tried to change the way of art education focused on creativity. The course instruction on textbooks and the guidelines of cram schools proved that they concentrated on connectivities of each actual exercises with motive rather than drawing theories. However, the education system of Korea does not have the appropriate strategy yet, so the course instruction of Korea does not present big differences comparing with past course contents. A middle school period is the most important period of human's life because the feeling and mood of a human shows drastic changes. Thus, I suggested that the course division and teachers concern the art education related with students' emotion and the contents actually needed by students. The education of drawing on middle school should be the one can help students find the internal beauty of the objects and express its reality and vitality rather than just reappear them. For those reasons, a dessin is the basic course of the art education and it should be continued until the students be professional artists.

I reviewed seven textbooks of middle school course and studied the methods of some expanded drawing education on current trend. First, I stated the necessity and the purpose of the drawing instruction on Korean middle school education. Second, I reviewed the references and present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 of a dessin to understand it. Third, I examined the textbooks to discover current state of a drawing education in Korea and its difficulties

and to find some expanded drawing teaching methods. Forth, I searched the present issues of the drawing education and its weaknesses and proposed the solution of the problem with effective ways.

The teachers of middle schools will be asked to help students to express the objects not in abstract way but in natural way on their drawing classes. Thus, the teachers will support a lot of vidual aids and teach a great deal of drawing ways, so the students will can express their own artistic world without burde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미술 교육은 미술 활동을 통해 정서의 함양과 자유로운 발상의 표현과정으로 창의성을 개발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7차 미술과 교육 과정에서 미술 교육은 기능 중심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려는 변화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계 전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묘는 종전의 지도 방법이 대부분 활용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은 교사가 정해진 주제와 시간에 따라 완성을 하고 그 과정을 지켜본 후 간단한 감상을 하는 형식의 수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기능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들이 손으로 그린 것과 눈으로 보는 사실과 비교할 때 자신이 그린 그림이 눈에 비치는 것만큼 사실적으로 닮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을 느끼며 좌절하고 실망하여 그림을 그리는데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¹⁾ 그 결과 학생들은 소묘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표현력과 창의력이 굳어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소묘는 대상을 관찰하여 재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기본이 되는 수업이며,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미술의 과정이다.²⁾ 즉, 소묘는 단순히 사물을 관찰하여 사실적으로 재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여 자신의 창조적인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또한 소묘는 정서가 밑받침된 형태탐구 방법에서 인지적 발달을 가져오며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적인 의의가 크다³⁾ 소묘지도는 개개인의 감정과 사고를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초로서

1) 김은미, “단계적 드로잉 지도를 통한 보고 나타내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 교육대학원, 2002. p.vii.

2) 전귀복, “표현력 향상을 위한 소묘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p.2.

3) 안연희, “표현력 신장을 위한 형태지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1997, p.2.

묘사기능을 위한 기계적 연습이라는 한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현대미술과 혁신적 개념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⁴⁾ 따라서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하여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표현력을 향상하여 사실적인 표현에 자신이 있으며, 다양한 조형 활동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현대의 흐름에 맞추어 확장된 수업의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⁵⁾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묘에 의한 조형 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짚어보고 중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효율적인 소묘 수업 방안을 고안해보려고 한다. 소묘 수업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소묘의 개념과 역사 및 가치를 알아보고, 미술교과서, 미술과 교육과정, 학교 교육 현장에서 소묘 교육 현황을 파악한 후 수업 모형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를 위해 미술 교육에 있어 표현 영역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소묘의 중요성과 자유로운 발상을 위한 기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문헌 자료 및 선행 연구 논문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 아니라 대상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학교 7종 교과서의 분석을 통한 현행 소묘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찾고,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소묘 수업 방안을 구안하여 학교 현장의 미술과 수업에 적용하고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 소묘의 이론적 배경으로 소묘의 개념 및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먼저 찾아보았다.

둘째,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서 소묘 내용의 분석을 통해 소묘 교육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구체적인 소묘 수업 지도방안으로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수업 지도 모형을 제시한다.

4) 지민숙,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인 소묘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p.2

5) 류수동, “소묘 지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p.2

II.중학교 미술교육에서 소묘의 이해

1. 소묘의 개념 및 의의

가. 소묘의 개념

소묘는 영어의 드로잉(drawing), 프랑스어의 데생(dessin)에 해당한다. 양자의 동사형 draw, dessiner는 모두 <선을 긋다, 선묘(線描)하다>의 뜻이다. 데생의 원 뜻은 완성작에 대립되는 준비 단계의 갖가지 작업을 가르치는데 반해 드로잉은 사전적 의미로는 초벌 그림의 의미를 지니나, 최근에는 보다 넓은 뜻으로 해석되어 회화와 구별이 어려운 정도이다.⁶⁾

소묘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로 [선을 긋는다]는 원초적인 개념에서 출발하여 물체의 골격을 이루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윤곽선을 구조로 하여 색채와 음영을 동반한 회화 작품의 예비단계로 제작되었다. 소묘는 중등학교 대부분의 미술교과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주로 한국이나 일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7차 교육과정 이전의 중등학교 미술 교과서나 자습서, 평가문제집 등에는 소묘 스케치, 크로키, 정밀묘사가 포함된다고 예시되고 있다. 소묘는 인간의 감정 표현 가운데서 근원적인 표현의 시작으로 추상적인 말이나 글보다 좀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시각 표현의 방법이다.⁷⁾ 소묘는 선으로 대상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 그리는 기술이 아니라, 대상에서 형태·비례·원근·명암·양감·질감·동세 등을 관찰하여 단색 선으로 형태를 창조해낸다는 점에서 모든 조형표현의 기본이 된다.

소묘에 대한 뜻은 현대에 와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묘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즉 '일반적 의미의 소묘'와 '변화된 의미의

6) 이일, 『한국미술 그 오늘의 얼굴』 공문사, 1982, p.237.

7) 최중남,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소묘학습활동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p.8.

소묘'가 그것이다.⁸⁾ 소묘의 일반적 의미는 그리는 행동, 선으로 그려진 것, 색과 관계없는 형태의 묘사, 초벌그림이나 초안, 특히 펜이나 연필로 그리는 것과 연필·펜·목탄·콩테 등의 단색으로 도면에 선을 그어 형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화의 기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단지 회화나 조각이나 건축의 제작에 있어서의 전초적인 작업이며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소묘이다.

변화된 의미의 소묘는 작품구상이 떠올랐을 때 순간의 발상을 기록해 두는 역할이다. 과거의 소묘는 일찍부터 화가의 표현 동기를 기록하거나 어떤 그림의 예비적 습작이나 밑그림으로서 본격적인 회화작품 제작을 위한 예비적 단계의 그림이나 그 과정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화가의 시각과 그 묘법의 다양성이 그 화가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이상을 순수하고 자유롭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라고 이해하게 되어, 소묘는 하나의 독립된 회화표현 예술로서 가능성이 새롭게 탐구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소묘는 표현에 있어서 데생만을 고집하지 않고 표현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으로서 최근의 의식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미의 추구하고 재료의 개발에 기인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조형의 문제가 미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묘의 한계선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료에 있어서도 연필·목탄 등과 같은 재료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소묘의 재료에 어울리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콩테·파스텔·크레용, 색연필과 같이 색채에 관계된 소묘의 재료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소묘의 성격과 역할도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색채가 화면에서 차지하는 경중을 떠나서 색채가 선의 역할로서 사용된다면 소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술적인 능숙도나 완성도 보다는 인간경험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모방적 기능 연마로서의 소묘의 기능은 감소하고 매우 확장된 개념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소묘는 발상과 자기표현의 개념으로서 인지되어 매우 다양한 표현과 기법을 공부할 수 있는 예술적 학문의 미개척 분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소묘의 의미와 역할은 최근에 큰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소묘가 하나의 독립된 회화가 될 수 있다는 인식,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는 점, 그리

8) 이강일, 『소묘의 이해』 미진사, 1988, p.46.

고 매체의 독자적인 성격이나 순수성이 무너지고 혼합된 매체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소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있었던 것은 1960년대 개념미술이 부상되면서부터이다. 개념미술은 미술가의 사고를 강조하였고 미술가의 사고는 회화나 조각과 같이 구체화된 대상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현대미술에서의 소묘의 역할은 완성된 작품을 위한 기초과정이며 동시에 독립된 작품으로서의 그 역할이 충분하며 그런 사람의 내적 구상이나 관념, 심리상태, 제작 과정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창의적 표현이 될 수 있으며 내면세계의 표출로 심리 치료의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회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현대의 소묘의 개념은 소묘를 말하는 소묘(素描)에서 ‘소(素)’는 논어에서 자하 문장에 나오는 회사후소⁹⁾에서 기인한 말로 인품을 갖춘 뒤에 그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미의 말이다. ‘묘(描)’는 그린다는 뜻으로 객관 형태의 말이다. 근대에 들어서 ‘소(素)’보다는 ‘묘(描)’가 더 중시되게 된다.¹⁰⁾ 소묘란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단지 밑그림이라는 협소한 이해나 자연대상에 대한 초보적 접근 정도의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 근세 이전 서양에서도 이런 사고는 같았다. 그 당시 서구적인 차원에서 소묘라고 하는 해석은 선을 위주로 하여 그리는 행위로서 밑그림, 즉 초벌그림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펜이나 연필, 크레용 등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는 어떠한 회화적 장르와의 구별하기가 힘든 폭넓은 재료, 방법적 범주를 형성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고가 통합되어진 동양에서는 신체적 움직임에서 드러나는 육감으로서 소묘는 작가의 양식적 언어 전체를 서술하고 종합하는 일로 나타나며, 자발성을 통하여 개인의 생각과 같은 고민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린다는 의미에서 끌어낸다는 의미로, 소묘는, 즉 최초의 ‘짓’ 또는 ‘흔적’을 ‘끌어낸다’ 라는 것에 부합되어 작가의 내면에 통합적으로 이르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동양에서 소묘는 매우 정신적인 것이었다. 소묘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상적인

9) 회사후소(繪事後素) :논어 3권에 공자의 말씀. 흰 바탕이 마련된 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뜻. 즉, 흰 바탕이 채색을 받을 수 있고, 순수한 물에 설탕이 잘 녹을 수 있듯, 인간도 마음의 바탕이 청결해야 아름다운 인생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10) 왕정육, “중학교 소묘지도실태에 따른 효과적인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6. p.20.

동서회화의 가교적인 역할을 했으며, 앵포르멜¹¹⁾ 이후의 화가들에게는 인체에서 심장의 역할과도 같은 절대적인 의미로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¹²⁾

소묘는 원래 창작의 예비적, 준비 단계의 부산물로 인식되었다. 소묘의 초기의 의미는 선을 이용하여 대상의 외관을 그려낸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이는 대상에 대한 리얼리티 분석 방법을 외형적 현상에 주의를 기울인 것에 유래한다. 소묘는 이미 모든 작가에게 공통된 하나의 표현 매체이자 그 전체과정을 가리킨다. 이 점이 미술에 있어서 소묘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소묘는 여러 가지로 분화된 형식으로 제작하고 있는 예술가의 창조력을 꼭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전개시키는 기능을 가진 미디어이다. 소묘는 작가가 영감을 받아 떠오른 아이디어 즉,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발생과 진행에 서부터 그것을 전개하고 실현해나가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소묘는 밑그림이라거나 페인팅에 앞서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은 머리에서 인식하는 것이며, 인간의 행위 또는 회화에 있어서 소묘는 무의식과도 같은 감성의 자연스런 표출이다.

나. 소묘의 교육적 가치

오늘날은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산업사회의 가속화로 인하여 인간의 물질적 생활은 한층 더 풍요로워졌으나 반면에 정서 생활은 더욱 메말라 가고 있다.¹³⁾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과 방법이 있으나, 청소년기의 중등 학생들에게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시각적 조형 언어를 통하여 창조, 발전시킬 수 있는 미술교육이 그 방법 중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¹⁴⁾

사람은 자신의 감각을 통해 배운다.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는 능력은 인간과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매개 역할을 한다. 때때로 어린이를 교육하는 과정과, 제한되고 예정된 반응을 발달시키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11) 앵포르멜(Informel)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새로운 회화운동

12) 권여현, 『드로잉의 세계』 제원, 1999, p.33.

13) 김삼량,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1992, p.36.

14) 노영자·이인숙, 『미술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2000, p.6.

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린이를 포함한 인간의 오감을 통해 배운다는 단순한 사실을 거의 무시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지각적 감수성의 발달은 교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술을 제외하고는 그런 감각을 기르기 어렵다.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기회가 많을수록 배움을 위한 기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¹⁵⁾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인간으로 자라느냐, 아니면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응용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자라느냐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예술교육을 제대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각과 사고, 감정은 어떠한 창작 과정에서든 동등하게 강조되는 것이며, 미술 활동은 어린이의 지능과 정서 사이에도 필요한 균형을 유지해 주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표현과 창조적 사고의 독창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다른 수업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필요하다. 수업을 통하여 개성적인 표현을 육성하고 싶어 하는 교사는 독창성과 자발성을 자극하기 위해 어린이가 자유롭게 창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며 창조 행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칭찬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이상적으로 실현하고 미술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다. 많은 미술 영역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심화된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기능위주의 단조롭고 기계적인 반복을 통해야만 도달 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정해 놓아, 눈으로 본 것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지각적 감수성을 발달시키기 보다는 미술을 점점 더 자신과 관계가 먼 분야로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술 활동을 세부 영역으로 분화시켜 심화된 기능을 요구하기보다는 기초 조형 훈련 중심으로 내부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하는 것이 한 가지 단기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기초 조형훈련으로 적당한 것으로는 소묘 과정이 적합할 것이다. 그래야 소묘 수업이 형식적 편성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며, 통합 운영으로 인한 절대시간의 확보로 실질적인 수업 수행이 가능 할 것이다.

소묘 지도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미술과 수업에 있어서

15) 로웬펠트 · 브리테인 지음, 서울대학교 미술교육 연구회 엮음,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1993, p.27.

표현 활동의 기본 목표는 조형의 기초적인 표현력을 길러주어 그 표현력을 통하여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의도적, 효과적,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조형의 기초적인 표현력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소묘이다. 객관적 묘사가 아닌 자유롭게 대상을 관찰하고, 사물의 내·외적 움직임, 입체감, 재질감 등을 주관적으로 표현하여 대상을 막연히 보는 것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탐구하여 눈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타고난 미적 능력을 일깨워 주는 것이 소묘의 한 가지 목적이 된다.

소묘는 시야를 물어보는 도구이며, 이해의 뜻으로 나타내는 도구이다. 거울은 그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소묘는 시각적 마음을 반향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보는 능력이 향상 될수록 본 것을 그리는 능력 또한 향상된다. 이와 같이 소묘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이미지를 단순히 묘사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도 훨씬 넓은 기능을 갖고 예술가의 관념이나 사고의 상태를 밀착시킨 상태에서 형을 그리거나 또는 상징화 한 것이다. 소묘를 가르친다는 것은 보는 법을 가르친다는 말인데, 단순히 본다는 그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사물을 다르게 관찰하고 다르게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두뇌의 인식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즉, 소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자신이 볼 수 있는 능력의 발전(시각적인 기능)과 지각과 관련 있는 제스처 감각의 획득으로 그의 영상적인 것과 재질적인 뜻의 이해를 얻는 것이다. 미술교육은 미술활동을 통하여 자아표현의 방법을 제공하고 개성과 창의성, 아름다움과 즐거움 등을 자극함으로써 미적 정서를 함양하고 창조성을 개발하여 환경을 미화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인간성을 기르는데 있으며, 소묘의 교육적 효과는 조형 요소와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여 자유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받아들이고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묘의 표현활동은 관찰(시각)→사고(두뇌)→표현(손)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시각은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해까지도 포함하며, 사고는 대상을 단순히 그린다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 풀어 나가는 과정(판단, 결정)을 말한다. 또한 표현은 대상을 판단하여 그려나가는 것을 말한다. 즉,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여 어떻게 대상을 풀어 나갈 것인지 결정하고 손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조형적인 표현활동의 행위로서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미술교육에 부합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통하여 내면세계를 마음껏 분출할 수 있도록 근대적인 기능주의적 주입식 소묘가 아닌 현대적 의미에 부합하는 소묘 지도가 이뤄지도록 학생들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등시기의 학생들은 비판의식과 인식 능력이 발달하여 초등시기 동안에 나타나는 무의도적인 표현 행위에서 벗어나 의도적인 자신의 표현행위를 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 자신의 표현과 다른 사람의 표현, 자신의 표현과 표현 대상을 보고 그것과 닮게 표현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표현의지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면 상상과 추상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표현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면 미술활동 능력은 저하하게 되고 미술을 멀리하게 되므로 자신의 표현에 긍지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어떤 특정한 한가지의 기법이나 표현방법을 가르치기 보다는 다양한 재료, 표현방법, 주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여 다각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중등학생들은 표현활동에서 공간에서의 크기나 색채, 명암, 원근 등의 변화를 표현하려고 애쓰고, 실제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여 각 요소와 부분 간에 조화를 주관적이고 개성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나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표현활동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미술활동을 계속 멀리하게 된다. 이러한 원인을 자신들의 표현능력과 미적 감각이 없다는 이유로 재능과 결부지어 미술활동을 멀리하고 있으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상을 보는 눈과 표현방법이 미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 경험을 강조하거나 그들의 특성을 살려 표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야 하며 표현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의도를 또렷이 나타낼 수 있도록 사물을 보는 눈과 표현방법을 배워 쉽고 자신감 있게 미술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묘는 가장 친숙하고 직접적인 자신표현이며 사물을 관찰하는 방법과 그것을 자기화 시켜 표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 수단이다. 그러므로 소묘를 통하여 모든 표현활동의 기본이 되고 조형 활동의 기초적

학습에의 근본이 되게 표현능력을 신장시켜 표현력에 자신감을 갖고 대담하게 표현함으로써 흥미 있는 표현의 기쁨을 맛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중학교 소묘 교육의 현황

가. 소묘 내용 분석

교과서는 교육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편집한 학습 자료로서 주로 학습자가 활용하는 자료이므로 학습자의 입장에서 제작되어야 한다.¹⁶⁾ 즉, 미술교과 교육에서는 생활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풍부하게 해 주며, 미술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서를 가지도록 하며, 동기 유발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북돋워 주고 주제,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 활동과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예술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에서 소묘교육의 성격은 대상의 형태 및 심상의 세계 등을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과목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대상을 정확히 관찰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개성적인 표현 활동을 통하여 독립된 작품으로써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한다.

<표 1> 소묘교육의 목표

소묘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상에 대한 관찰 및 표현 능력을 기른다.
(가)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나) 표현 재료와 용구의 특징과 기법을 알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 조형 의도에 적합하게 대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6) 김태외 2인공저, 『고등학교 미술 교사용 지도서』 1998, p.36.

<표 1>에서와 같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소묘 교육의 목표를 알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교사의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소묘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학교의 미술시간에 소묘 수업 시간은 교사의 재량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국어과와 같이 국정 교과서에 맞게 꼭 배워야할 내용이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미술과 교육 과정의 목표와 방향에 맞게 교사의 재량으로 재구성하여 지도하도록 하는 지침 아래에 각 학교의 미술 교사마다 나름대로의 연간 수업 계획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간 수업 계획의 구성은 교사의 연령과 전공, 개인의 교육관에 따라 창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의 연령과 전공, 개인의 교육관에 따라 창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학교 급별 교육 과정이 같이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7차 교육 과정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는 교사, 그 이전의 교육 과정에 머물러 있는 교사, 그리고 7차 교육 과정을 앞서서 개척해나가는 미술 교사 등 다양한 교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중학교 1,2,3학년의 미술 수업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더 더욱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표 2> 소묘부분 교과서 분석

학 년	교과서	단원명	학습목표
1	교학사	선으로 그리기	다양한 소묘 재료의 특성을 살려 선의 느낌을 이해하고 나타낸다.
	두산	-주변의 사물 관찰 -사물의 표현	물체의 기본형과 명암, 질감, 색채등을 파악한다. 주제에 맞게 재료를 선택하여 표현한다.
	대한교과서	가까이 있는 것을 살펴서	주변에서 받은 감동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지학사	선으로 둘러싸인 세상	주변에서 선의 특성을 찾아 소묘로 표현할 수 있다.
2	교학사	친근감 있는 사물의 표정	생활 주변의 사물을 관찰하고 선으로 표현한다.

	두산	균형, 비례, 동세, 율동	자연과 조형품에서 균형, 비례, 동세, 율동을 이해하고 표현 활동에 적용한다.
	지학사	질감과 양감표현	대상의 질감, 양감을 살려 표현할 수 있다.
	대한교과서	제시하고 있지 않음	제시하고 있지 않음
3	교학사	눈으로 살펴서	주변 사물을 관찰해 보고 형과 색의 특징을 살려 개성있게 표현한다.
	두산	조형의 요소, 양감, 질감	자연과 조형물을 감상하고 양감과 질감을 이해한다.
	지학사	소묘의 창의적 표현	소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대한교과서	보이는 것에서 창조로-한가지 색으로 그리기	여러 가지 관찰 방법과 재료를 활용하여 주제를 다양하게 표현한다.

<표 2> 에서 알 수 있듯이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서의 소묘 단원은, 1학년에서는 소묘의 뜻과 다양한 소묘 재료의 특성을 살려 선의 느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과 물체의 기본형과 명암, 질감, 색채 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2학년에서는 자연과 조형품에서 균형, 비례, 동세, 율동을 이해하고 대상의 질감, 양감을 살려 표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3학년에서는 주변 사물을 관찰해 보고, 형과 색의 특징, 양감과 질감을 살려 개성 있는 표현과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하여 주제를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표 3> 중학교 교과서 소묘 쪽수 분석

	지학사		교학연구사		대한교과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삶과꿈		교학사		두산	
	쪽수	%	쪽수	%	쪽수	%	쪽수	%	쪽수	%	쪽수	%	쪽수	%
1년	2	3.17	2	3.17	2	2.99	0.5	0.75	·	0.0	2	3.28	0.3	0.48
2년	2	3.28	·	0.0	·	0.0	·	0.0	·	0.0	2	3.28	·	0.0
3년	2	3.17	2	3.28	1	1.49	·	0.0	·	0.0	·	0.0	0.5	0.79

계	6	3.21	4	3.23	3	1.49	0.5	0.25	·	0.0	4	2.19	0.8	0.42
순위	1		2		4		6		7		3		5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미술 분야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소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교과서 총 지면 수에 비해 소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빈약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소묘가 미술 활동이 기본이 되고 있음에서 교과서의 소묘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소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빈약하여 현장에서도 비중 있게 소묘를 다루고 있지 않다. 현대에서 소묘는 밑그림의 의미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짧은 시간 안에 소묘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표 4> 지학사 교과서 분석

1학년	2학년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소묘 ■ 내용 : 소묘의 정의 · 소묘의 재료와 표현효과 · 소묘의 표현방법 - 참고작품 · 고희의 아를르를 바라보며 · 이중섭의 그리운 제주도 풍경 · 김기창의 군마 · 학생작품- 문고리와 짚신, 열쇠와 자물쇠 · 학생작품-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질감과 양감표현 ■ 내용 : 질감표현방법 재질에 따른 질감표현 · 사물의 사실적 표현 ■ 참고작품 · 박수근의 나무와 두여인 · 콜비츠의 콩테 자화상 · 학생작품 - 친구, 화장지, 바윗돌, 오이와 귤, 지우개를 쥐 손, 책 위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소묘의 창의적 표현 ■ 내용: · 소묘의 의미 ·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통한 소묘표현 · 상황의 표현 ■ 참고작품 · 박수근의 나무 · 미켈란젤로의 리미아의 무녀 · 드가의 등 뒤에서 본 무희 · 레이먼드 페티본의 야구경기 · 피카소의 수탉

<표 5> 교학연구사 교과서 분석

1학년	2학년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선으로 그리기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에 따른 선의 느낌 · 다양한 선의 느낌 · 브라인드 칸투어소묘 · 크로키 ▪참고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세옥의 사람들(수목화) · 마티스의 얼굴 소묘 · 김기창의 군마 · 라파엘로의 젊은 남자 초상 · 학생작품- 댄스, 친구의 얼굴 자화상, 다양한 손 	<p>단원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목 : 소묘로 나타내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묘의 뜻 ·소묘의 표현기법 ·소묘의 재료와 효과 ▪참고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명국의 달마도 · 학생작품- 정물, 얼굴, 마늘, 형의 변화, 컵, 종이리본, 손의 움직임

<표 6> 대한교과서 분석

1학년	2학년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가까이 있는 것을 살펴서-형의 기본과 명암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의 기본 표현 방법 · 소묘의 과정 · 명암의 단계 · 재료에 따른 양감 표현 ▪참고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라의 밀짚모자를 쓴 남자 · 학생작품-벽돌, 곰, 인형 	<p>단원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목 : 표현하는 즐거움-한가지 색으로 그리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묘의 정의 ·소묘의 재료 ·소묘의 종류 ▪참고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묵의 연필 풍경 스케치 · 장리석의 목탄 스케치 · 김종영의 콩테 작품P-2 · 학생작품-장미

<표 7> 중앙교육진흥 연구소 교과서 분석

1학년	2학년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고요한 생명 -정물 표현과 형의 기본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물의 기본형태 파악 ▪참고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작품- 주변의 것들 연필 소묘	단원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단원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중학교 소묘 교육의 개선방향

1) 중학교 소묘 교육의 현황

중학교 미술 교육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소묘의 개념은 주로 인상과 이전의 아카데미한 지도 방법에서 형성되어 사실적 표현기술을 습득, 숙달하는 것이 목표이자 방법으로, 고전적인 소묘학습을 크게 발전시키지 못한 채 편협하고 부분적인 의미로 답습되어져 왔다. 미술은 느낌이나 생각을 시각적 조형 언어를 통해 창조, 발전시켜 나가는 예술이다. 또,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미술 교과 교육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력,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며,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¹⁷⁾ 미술은 감각 기관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표현 활동이다. 이렇게 형상화하는 능력의 기초는 대상의 관찰에서 출발한다. 소묘는 작품을 구상하거나 대상의 형, 구조를 탐구하는 조형 활동의 기

17) 김기숙 외 저, 『 고등학교 미술 교사용 지도서 』 대한교과서, 2001

초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따라서 소묘를 통한 표현활동은 주변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관찰을 통하여, 대상이 가지는 형과 질감, 명암의 특징을 파악하고 재료와 표현 방법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자기표현을 위한 상상력의 개발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의 형성을 위한 발상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학생들은 즐겁고 호기심 있는 수업이 되기보다는 점수에 대한 강박관념과 긴장으로 개성적 표현보다는 오로지 닮게 그리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다. 현재 중학교의 미술시간의 주당 1학년과 2학년이 2시간, 3학년이 1시간씩으로 되어 있다. 그 수업 중에서 소묘지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교재에 한 시간 정도이며, 완성도가 빈약하면 다음시간으로 넘어가 많아야 2시간 정도일 뿐이다. 그리고 미술 이론(감상)을 제외한 실기 시간에는 준비물 점검과 실기 준비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실기를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다. 더욱이 마이크만 가지면 많은 인원수도 강의 할 수 있는 타 교과와는 달리 개별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술 교과는 한 반에 30명 이상 되는 학생을 상대로는 거의 지도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자유방임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치제크(Franz Cizek)¹⁸⁾의 주장처럼 학생들에게 하등의 지시, 간섭, 제한, 조건을 가하지 않고, 학생의 자발성을 중심으로 유희를 하듯 자유롭고 마음껏 표현해 보도록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며, 이러한 주장에도 일견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 그러나 지나친 자유방임주의는 긍정적인 면만큼, 부정적인 측면을 피할 수 없으며, 이 자유의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학생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사 스스로 학생지도를 포기할 수도 있는, 짧은 미술 시간의 편성과 많은 학생에 대한 부담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묘 개념은 주로 인상파이정의 아카데미한 지도 방법에서 형성되어 사실적 표현기술을 습득, 숙달하는 것이 목표이자 방법으로, 고전적인 소묘학습을 크게 발전시키지 못한 채 편협하고 부분적인 의미로 답습되어져 왔다.

18) 치제크(Franz Cizek, 1865~1946) : 미술교육학자, 특히 아동미술의 거장, 체코슬로바키아출생, 어린이의 창조성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주의 미술 교육의 선각자로 세계의 미술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현대 미술의 다양한 창조적 시각 표현의 기초로서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구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조형 훈련의 한 방법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인상주의의 새롭고 획기적인 시각에서의 무엇을 그려야 하는 것에 대한 탐구하는 눈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 지의 생각하는 눈으로 전환시킴으로서 현대 회화의 방향을 열어 주었다. 즉, 현대 소묘의 의미는 르네상스 이후 변화를 거듭하여 해부학적인 정확성만을 추구하지 않고 최근의 변화에 따라 그 표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회화나 조각 등의 부속물로서 시각적 재현에 머무르던 것에서 독립하여 간결한 기호만으로도 충분히 형태를 이루면서 스스로 회화의 한 영역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소묘는 선으로 대상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 그리는 기술이 아니라, 대상에서 형태, 비례, 원근, 명암, 양감, 질감, 동세 등을 관찰하여 단색 선으로 형태를 창조해낸다는 점에서 모든 조형표현의 기본이 된다.

현대 화가들은 작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 또는 느낌을 자유롭게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방법으로서 소묘를 새롭게 활용, 탐구하고 있는 현대 미술에서의 소묘의 교육적 가치는 크다. 현대의 다양한 변화 속에 많은 수업들의 모습이 변모되고 발전되어 왔지만 소묘 교육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으며 수업 프로그램 또한 개발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업 내용의 발전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소묘의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르네상스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부학적인 정확성과 투시도법, 과학적인 형태 표현의 숙달로 자유자재로 원하는 대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 속에서 살펴보아도 화가들이 그 방법을 얻고자 노력을 기울인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고전적인 지도방법은 특별한 능력을 타고나지 않은 평범한 학생에게는 어려운 방법으로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잡기에도 어렵다. 이와 상반되게도 현대미술은 작가의 개성을 자유롭게 나타내며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느낌과 생각을 표출해내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소묘 교육은 시대와는 맞지 않는 가치관과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다.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발상을 통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표현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목표에 맞추어 수업 계획을 짜고 학생들에게 목표를

이루어내도록 하는 것이 학교 현장의 역할일 것이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표현 활동에서 그리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소재 또한 빈곤하다. 그것은 사물을 보는 눈과 방법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물을 보는 눈과 방법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소묘 활동에서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못 그린다고 자신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표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 무조건 닳게 그리며, 어떠한 공식에 의해 잘 그려 보이는 작품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관찰한 것을 토대로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표현 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미술이 실습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 조성이 우리의 학교에서는 너무도 미흡하다. 전체적으로 학교 시설이 효율적인 수업을 운영할 만큼 넉넉하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미술과의 교구나 시설은 과학이나 체육, 음악 등 타 교과와 비교를 해보아도 부족한 현실이다. 사회의 성적위주의 사회 풍토나 예술 분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가 정책의 영향으로 미술은 소외되고 있는 과목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미술 교과에서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습 기자재와 실습 공간의 부족은 교육의 효과를 끌어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 충분한 재료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미술 수업 재료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준비는 매우 열악하여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입한 재료를 가져오는데 재료의 질과 양이 모두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제한된 도구들로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마음껏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소묘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수업 재료와 도구, 편리하게 수업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수업 프로그램 개발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¹⁹⁾

19) 이병중, '소규모 농촌 초등학교에서 표현력신장을 위한 단계별 「소묘 및 색채」 지도 프로그램 적용사례'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 2009.

2) 중학교 소묘 교육의 개선 방향

현행 미술 교과서는 기능에 의존한 사실적 표현을 주로 제시하고 있고 재료나 기법 면에서 새로운 흐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소묘부분 교과서 분석을 통해 시간 배정이나 소묘 관련 작품 수를 볼 때, 소묘가 빈약하게 다루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미술 교육자들에게 소묘는 조형 교육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묘를 전통적 관념으로서만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결과이다. 따라서 소묘의 다양한 기법과 새로운 해석을 이해하여 학생들에게 기초 조형 교육의 방법 또는 소묘 그 자체를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현 미술교육의 동향은 감성적 직관이나 미적 체험을 중요시하며 시각적 감수성의 체계적 훈련 및 시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²⁰⁾ 이점을 고려한다면 소묘지도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학생들은 대부분 대상을 거의 관찰하지 않고 그들이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화된 형태로서 그림을 그린다. 창의적인 소묘지도는 기초 조형 요소를 충분히 익히도록 해야 하며 사물의 실제 모습을 똑같이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느낌, 인상, 운동감 같은 사물의 질적 특성까지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중등 학생들은 대상을 도식적 표현에만 머무르던 것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는 시기이다. 교사가 이 시기 학생들의 표현유형 및 미술 표현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지도를 한다면 학생들의 표현력과 창의력은 의욕적이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 시기에 학습되어야 할 소묘는 사물 즉, 대상을 관찰하여 형태를 바로 잡고, 비례를 파악하고, 명암에 의한 입체감의 표현과 양감, 질감, 그리고 공간감을 표현하는 관찰의 연속적 표현능력을 기르는데 훈련되어 져야 한다. 사물에 대한 관찰은 무엇보다도 대상 파악의 주축이 되는 요인으로 '상상'과 더불어 조형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는 1차적인 기본원리이다. 사물의 관찰은 시각 작용에 의해서 구체적인 대상에서 조형에 관계되는 것을 찾아내는 일로 감동의 바탕을 확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상상과 변용의 기반이 된다. 대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미적 표현은 크게 달라진다. 그러는 데 어려움을 느낀 것을 대개 한정된 방법으로 사

20) 박우식, “소묘지도를 통한 창의적 표현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p.19.

물을 보는 것으로부터 온다. 이러한 점에서 소묘는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초 소묘과정에 있어서 대상의 관찰을 통한 사실적 묘사 능력의 지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것은 학생들을 시각적 표현에 쉽게 접근시키고 자신감을 얻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소묘와 관찰하는 것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는 것을 더욱 예리하게 하며, 그리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날카롭게 한다. 그리기 문제는 대부분 눈으로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진다. 또한 보는 이들의 시각 세계의 차이와 다양성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게 될수록 더욱 개방적이고 창의적으로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소묘를 통하여 단순히 대상을 보고 묘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관적인 해석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본다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대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현존하는 입시제도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소묘가 미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입시라는 울타리 안에서 관찰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암기식 표현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그 의미가 상실되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그럴 때에는 그리는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 것처럼 관념화 된 지식이 아닌 자기의 눈이 그리라고 하는 대로 관찰해서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스럽고 참모습에 가까운 소묘를 그려내는 비결이며, 곧 표현력에 의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실적으로 닮은 그림만이 좋은 그림은 아니다. 오히려 각자의 관심과 주관에 따라 개성 있게 표현된 그림이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묘교육을 통해서 얻어야 할 분명한 것은 표현력을 위한 교육임을 학생들에게 과정을 통해서 인식되어지게 하고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묘를 통해 대상의 객관적 묘사보다는 주관적인 시각경험에 의한 미적체험을 통해 표현하려는 이의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학생들의 눈은 열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보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이 살아 있어서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물을 보다 시각화한다는 의미이다.²¹⁾ 이러한 점에서 학습지도는 다양한

21) 김해성, 『현대미술을 보는 눈』 열화당, 1998, p.163.

학습개발을 통해 창의적인 표현과 독자적 형태를 학생들이 대상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 방법을 창안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물에 대한 올바른 관찰 방법의 부족함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과 그릴 대상물을 자세히 관찰한다는 것은 분리되지 않은 관계로 소묘의 핵심이 된다. 사물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잘 그릴 수 있고, 잘 그려봄으로써 사물을 깊이 있게 파악되는 것이다. 즉, 보는 능력이 향상 될수록 본 것을 그리는 능력 또한 발전한다는 말에서 보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곧 소묘의 역할이라고 말 할 수 있다.

Ⅲ. 소묘 지도 방안

1. 확장된 소묘 지도 방안

자유로이 표현한다고만 해서 표현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방향을 잡아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바람직한 시지각 발달을 위한 소묘 활동을 위해서 어떤 대상을 보고 관찰하여 표현하기까지의 과정에는 시각과 함께 여러 가지 감각을 활용한 방법이 제공 되어야 한다. 앞서 시지각과 미술 표현에서 설명한 ‘본다’ 는 것은 시각이라는 한 감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가능한 다섯 가지의 감각을 모두 이용한 것이라 했다. 관찰하여 표현을 한다는 것은 대상의 시각 개념에 의한 단순한 재현도 아니고 상상에 의한 표현만도 아닌 모든 신체의 감각을 통한 대상이 지각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들의 눈을 통한 다 감각으로 관찰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작품으로 표현된 내용이 실제의 대상과 유사한 점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어린이가 지각한 것이 사물의 사실성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바람직한 형태 표현이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다. 또 비록 관찰한 내용이 많이 미숙한 표현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자신에게는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 줄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의 시지각적 표현능력 신장을 위한 소묘지도의 구체적 접근 방향은 어린이가 어떻게 하면 소묘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눈으로 사물의 본질을 직관하고 그것을 평면표현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접근되어야 한다.

첫째, 어떻게 보는가 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 소묘 활동이다. 같은 대상도 보기에 따라, 다시 말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따라서 무엇을 볼 것인가에 못지않게 어떻게 볼 것인가는 미술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실마리가 된다. 사실 미술교육은 그것이 어떤 현식으로 이루어지든지 시지각력을 키워주는 교과이므로 우선적으로 소묘를 하려면 제대로 보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곧 눈을

통한 다 감각을 이용하더라도 가장 구체적으로 시각을 매체로 표현하여 시지각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새롭게 보는 방법의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묘지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둘째, 오른쪽 두뇌로 보기를 지도하는 것이다. 사람이 본다는 것은 결국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통하여 뇌가 보는 것이다. 그것도 오른쪽 두뇌의 반구가 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의 시각기관은 사진기 처럼 정확한 것이 아니고 매우 불완전하다. 이런 불완전한 시각기관을 가지고도 우리가 정확한 시각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오른 쪽 두뇌 반구에 있는 시각 중추 덕분으로 눈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복잡하고 부정확한 신호들을 잘 선택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뇌적인 표현법을 정확히 알아야 기본적인 것을 아는 것이며 우뇌로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미술 표현활동을 위해서도 이해와 감상 활동을 위해서도 시각적인 환경을 지각하며 살아가는데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셋째, 시각을 매체로 시각적 사고력 신장에 중점을 둔 소묘활동이다. 시지각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요소와 원리들이 추리나 기억 등과 같은 사고 과정을 거쳐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자극을 주어 시각적 사고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소묘활동을 모색한다.

가. 흥미 유발을 고려한 소묘 지도

학생들을 소묘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그려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학습자가 생각하는 것’을 그린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체계적인 학습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중학교 미술교육과정에서 기초가 되는 소묘는 고학년이 될 수로 흥미를 고려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중학교 미술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에 있는 단계로 고등학교의 지속적인 미술수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인지 발달 정도와 흥미도를 고려한 소묘수업이 이루어져야 한

22) 류수동. “소묘 지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p.26.

다. ‘어떻게 그릴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무엇을 그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 과연 학생들은 어떤 주제를 좋아하는 것일까? 그리기 영역에 있어서 학생이 그리고 싶어 하는 것을 그릴 때 보다 효과적인 동기유발이 가능하다. 이는 미술교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 걸쳐 학습자에게 적절한 동기가 유발된다면 높은 학습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주제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흥미를 높이도록 한다.

중등시기에는 만화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소묘의 작품을 제시할 때 만화의 밑그림을 보여 준다면 학생들은 흥미를 가지고 소묘에 대해 접근할 것이다. 만화를 소묘의 연결선상에서 보면 선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대상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묘의 기본 원리를 이해 할 수 있다. 만화 캐릭터를 이용해 대상의 구조를 도형으로 파악하고 그린다면 학습의 전이가 되어서 실제의 사물을 보고 그리거나 학습자가 생각하는 것을 그릴 수 있다. 이것은 학습자가 구도나 명암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잠재적인 학습 효과인 것이다. 미술시간에는 다른 교과에 비해 매체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²³⁾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는 하나, 현재 중등학교 교실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교구들이 많이 구비 되어 있다. 비디오, 대형 TV, 컴퓨터, 인터넷 전용선, 실물 환등기 등 과거에 비해 많은 교구들이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교육지원 교구들 적절히 활용한다면 현장에서의 학습효과를 충분히 신장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의 흥미를 가지고 소묘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의 재량권이 과거에 비해 많이 신장되었으며, 이는 곧 수업에 있어서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교사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기존의 교구를 충분히 활용함과 동시에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는 주제를 선정하고,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목표를 고려한 소묘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23) "ibid., p.32."

나. 자기표현을 위한 소묘 지도

현 미술 교육의 동향은 감성적 직관이나 미적 체험을 중요시하며 시각적 감수성의 체계적 훈련 및 시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대개의 학생들이 대상을 거의 관찰하지 않고서 그들이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화된 형태로서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소묘 수업을 위해서는 사물을 보고 관찰하거나 표현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신체의 여러 감각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커다란 형태를 지각하는 데는 시각보다는 비시각적 감각을 사용하여 두드러지게 형태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보는 것은 시각이라는 한 감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감각적인 것으로 우리는 색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감과 중량, 온도 등도 그 물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관찰 표현은 대상의 시각 개념에 의한 단순한 재현도 아니고 상상에 의한 표현도 아닌 신체 감각을 통한 대상이 지각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사물의 겉모습을 묘사시키기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시각과 촉각을 일깨울 수 있는 표현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관찰 활동이 이루어질 때 작품으로 표현된 내용이 실제의 사물과 유사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학생이 지각한 것이 사물의 사실성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바람직한 형태 표현이 될 수 있다. 설사, 관찰한 내용이 미숙한 표현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학생 자신에게는 큰 의미가 된다.

자기표현을 위한 소묘 지도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해 보면²⁴⁾ 첫 번째로 소묘 지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성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감각의 활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학생들의 감각에 호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찰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 주변에 구체적인 대상에서 출발해야 하며 감각을 활용한 관찰이어야 하고, 관찰을 통하여 본 것을 의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찰 내용을 시각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매체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재료나 용구를 단순히

24) 이미희, “바람직한 소묘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 교원대, 1993, p.50.

작품을 제작하는 수단으로만 파악하기보다는 매체의 탐색을 통해서 그 속성을 체득함으로써 표현성이 개발될 수 있다는 시각이 필요하다.

본 수업 방안은 소묘의 개념의 학습에서 시작하여 선, 입체, 명암, 추상 표현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 내용의 체계를 세워보려 한다. 각각의 활동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 차시의 수업을 할 때마다 소묘의 중요한 표현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모형을 만들어서 전체 소묘수업을 마쳤을 때 소묘에 대한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물론 각 지역마다 학생들의 특성과 교사의 역량이 차이가 나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수업은 언제나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표현력 향상을 위한 소묘 수업의 시간계획이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 감상을 통한 소묘의 개념 체계를 먼저 세우고, 소묘의 기본 조형요소인 선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그어보며 자신이 없어서 선을 짧게 다듬어가며, 굵던 방식을 벗어나는 경험을 통하여 선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도록 한다. 그 이후 입체 표현을 친근한 사물 그리기를 통하여 수비게 이해하기, 지워가며 그리는 효과적인 명암 표현, 추상 소묘를 통한 자유표현을 단계를 밟아가며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 중에서 각각 다른 소묘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소묘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를 높이도록 유도한다.

1차시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의 감상수업을 통해 소묘의 정의와 개념 등을 익히고 동서양의 시대별 소묘 작품을 감상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도록 한다. 2시에는 다양한 선의 세계를 이해한다. 종이를 보지 않고 대상만 보고 그려서 선의 느낌이나 손의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 프리핸드 드로잉으로 다양한 질감의 선 그리기, 자유 곡선 그리기, 다양한 직선 그리기, 한 점으로 모이는 선 그리기, 나선형 선 그리기, 입체감이 드러나는 선 그리기를 통해 소묘에 관한 흥미를 갖도록 한다. 3차시에는 입체를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소묘의 우너리를 익히고 원기둥을 응용하여 그리는 연습을 통해 눈높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육면체를 이용하여 그리는 연습을 통해 3점 투시 학습을 한다. 4차시에는 배경을 주제로 그리기로 먼저 종이에 파스텔로 배경을 칠하기, 배경 부분 스케치하기, 배경 빼고 닦아내기를 통해 표현력을 향상시킨다. 5차시에는 지워가며 그리기로 자신의

손을 보고 그린 그림과,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그리기를 목탄을 사용하여 그린다. 6차시에는 마음으로 그리기로 작품의 제목을 마음속으로 정하여 구체적인 대상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주제가 드러나게 표현한다. 서로 작품의 주제를 맞춰보는 시간을 갖는다.

다.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한 소묘 지도 방안

미술은 학생들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전체 안에서 서로 조화시키기 위해 통일, 균형, 변화 등의 조형원리를 필요로 하며, 또한 여러 재료의 사용과 자신의 의도로 구상했던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러한 활동과정은 모두 지성에 의한 것이다. 듀이²⁵⁾는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술작품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지성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종류의 재료, 언어적 기호나 단어를 이용하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질적 관계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언어적이고 수리적인 상징에 의해서 쉽게 조작되기 때문에 순수 미술작품의 제작은 아마도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위 최고의 사고라고 하는 것보다 더한 지성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서 듀이가 제안한 것은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기 위해 표현 대상의 특성을 선택하고 조직하는 문제가 질적인 영역에서의 이성적인 결정의 결과라는 것이다.²⁶⁾ 예를 들면 소묘수업에서도 소묘의 재료 사용을 모르거나, 소묘를 구성하는 조형요소, 조형원리 등을 모른다면 합리적으로 여러 재료들을 이용하여 시각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소묘능력의 경우 청소년기에 계속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구디너프와 해리스, 로웬펠트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사춘기 이후의 그리기 능력은 특별한 가르침이나

25) Dewey, John (1859.10.20~1952.6.1) : 버몬트주 벌링턴 출생. 버몬트대학을 졸업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미네소타 · 미시간 · 시카고 · 컬럼비아 각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1930년 이후에는 컬럼비아대학 명예교수가 되었다.

26) E.W. 아이스너 지음 서울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연구회 옮김.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예경, 1999. p140.

자기 학습이 없을 경우 발달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대부분의 성인의 미술기능은 14, 15살의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이론적 지식을 무시한 채 판에 박힌 개념화와 모방에만 치중하여 표현하게 함으로써 사실적 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고 결국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기 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론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는 소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수업계획이 이루어 져야 한다. 미술에서 이론 수업은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식 판서는 시선을 오래 끌지 못할 뿐 아니라 이론적 지식으로 보다 효율적인 소묘방법을 터득하려고 하는 데는 효과가 적다. 보다 흥미로운 수업을 위해서는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슬라이드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설명하게 되면 재료와 용구 및 예시작품 등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게 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 8>는 ICT활용을 통한 소묘이론수업의 예이다.

<표 8> ICT를 활용한 소묘 이론수업의 예²⁷⁾

교과	학년	학습 유형	정보탐색, 정보분석, 전문가 교류
미술	중학교 1	환경 및 자료	환경 및 자료 : 컴퓨터, 프로젝션 TV, WEB자료, CD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의 특징과 표현 방법을 알 수 있다. ▪ 각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시간계획	135분 (정보탐색, 정보안내, 정보분석)		
ICT 활용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를 활용하여 표현의 기초인 소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소묘의 재료 및 표현 방법을 알 수 있다. ▪ ICT를 활용하여 소묘 작품을 감상하고 느낄 수 있다. ▪ ICT를 활용하여 보충학습 및 심화학습과정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27) 최중남.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소묘학습활동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p.32.

현대의 미술교육은 전통적인 미술교육에 비하여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미술교육은 학생들의 독자적인 개성의 표현과 자아 실현을 통하여 창의성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유분방한 학습 분위기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미술 교육은 표현 방법의 자유와 표현 과정의 자유 둘 다 필요하다. 교사는 사고 방식의 경직이나 소재와 재료를 하나로 한정시키거나 학습방법을 획일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은 이러한 표현 방법과 표현 과정의 자유를 말살시킬 뿐 아니라 창의력을 가로막는 학습방법이다. 이렇게 볼 때, 과거처럼 교사중심의 획일적인 주입식 조형교육에서 자행한 학습방법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감성이나 자기실현에 대한 폭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분방한 학습을 통한 창의적 발상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성격,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지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느낌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나, 느낌을 느끼는 것은 종종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한쪽으로 감추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미로는 형언할 수 없거나 정의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감각(촉각)에 대한 시각적 가정과, 촉각 자체에서 느끼는 재질감을 시각화하여 발달시킬 수 있는 직접적이며 역동적인 소묘 수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볼 때 학생들이 그들의 다감각적 근육운동 지각을 이용하여 대상을 표현해 보는 것은, 시각의 편협된 관념을 고쳐줄 수도 있고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수업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⁸⁾

바람직한 소묘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물을 보고 관찰하거나 표현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신체의 감각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8) 임승연. “상징과 표현으로서 회화.” 석사학위논문. 신라대 대학원. 2008. p.35.

2. 구체적인 수업 지도안

가. ICT를 활용한 소묘 개념의 이해

ICT를 활용하여 명화 감상을 통한 소묘의 개념을 이해하는 수업지도방안이다. 명화라고 하면 학생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수업에서 잘못 활용할 경우 오히려 소묘에 대한 부담감과 그림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평소에 잘 아는 화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도판을 정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램브란트, 세잔, 르누와르, 고흐, 피카소 등의 화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간단한 화가의 지식과 함께 소묘의 개념에 대한 공부를 연결하도록 한다. 작품 속에서 소묘의 개념, 소묘의 종류, 소묘의 역사, 소묘의 표현 요소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작품의 감상과 소묘의 이론 수업을 함께 병행하여 수업하였다. 이 수업의 장점은 소묘와 관련된 간단한 한 두 장의 도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작품에 표현된 것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관심도를 높이기 쉽고 소묘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수업을 하면서 화가들의 작품 설명과 일화 등을 이야기하며 친근감을 갖고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감상과 함께 설명 후 소묘의 개념과 용어를 확인하며 정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다.²⁹⁾

교사와 학생을 구분하여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대답식의 지도안이 아니라 활동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활동 진행 시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나 이 방안을 적용 학습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소묘 작품만 모아서 수업을 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으며 활동 결과 막연한 명화의 감상보다 소묘라는 한 가지 장르의 작품을 한 자리에 놓고 보며 비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그리고 글자만 있는 학습 자료를 보며 개념 학습을 하는 것 보다 훨씬 이해가 잘되고 지루하지 않은 점도 장점이다. 또한 감상 학습에 ICT 적용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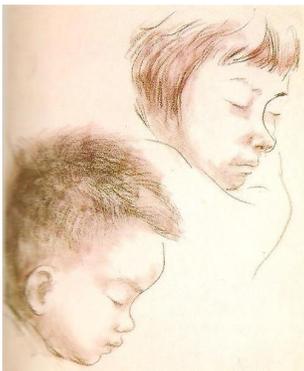
29) 전귀복. “표현력 향상을 위한 소묘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p.42.

감상을 통한 소묘 개념의 이해 수업을 효과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ICT를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정보탐색이 이뤄져야 한다. 찾고자 하는 정보를 여러 종류 검색 사이트로 검색하고 찾아낸 인터넷 박물관, 미술관과 전시장의 주소를 웹 브라우저의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이 기능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한다. 정보탐색이 끝나면 정보를 분석한다. 다양한 박물관을 조사하여 주소를 기록하고 견학하기, 인터넷에 올린 서로의 소묘 작품을 보고 표현 특징을 찾아 비교 설명한다. 또한 인터넷 박물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묘작품과 다른 나라 소묘작품을 스스로 찾아 감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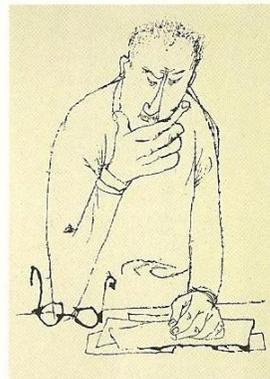
정보 분석이 끝나면 인터넷에 올린 친구들에 작품에 대하여 웹 토론을 한다. 웹 토론을 통한 협력연구는 미술 감상에 대한 보고서를 친구와 웹에서 협의하여 공동으로 제작하면 협동심 또한 기를 수 있다. 정보 분석을 통해 방문한 박물관의 감상문을 작성하기, 인터넷에 올린 친구들 작품을 보고 감상문 써서 올리기, 미술 작품을 분석하여 자신의 글 올리기, 웹 포트폴리오 만들기, 자신의 소묘 작품을 스캔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등의 정보를 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수업 준비에서 어려운 점이라면 생각보다 소묘 참고 도판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자료가 다양하게 마련이 되지 못할 경우 감상 과정이 지루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었다.

<그림 1>과 <그림 2>는 교과서에 나온 작품으로 각각 목탄과 펜으로 인물표현을 한 것이다. 재료에 따른 느낌의 표현도 작품 감상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교과서의 그림 또한 활용해야 한다.

<그림 1> 작품 P-2, 김종영



<그림 2> 자화상, 산



<표 9> ICT를 활용한 감상을 통해 소묘의 이해 교수·학습 지도안

수업 명		ICT를 활용한 감상을 통해 소묘의 이해 (소묘의 개념 이해)		차시	1/6
학습목표		1. 소묘의 정의와 개념을 말할 수 있다 2. 동·서양의 시대별 소묘 작품의 감상을 통하여 소묘의 종류와 화법을 알 수 있다.			
학습 형태		개별학습	학습자료	PPT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지도상 유의점 및 학습자료
		교수-학습 활동			
도입	출결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결확인 ▪ 소묘의 기초 지식을 확인한다. -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학생들의 소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다. ▪ 본시 수업의 내용을 안내한다. ▪ 학습 목표를 같이 읽으며 확인한다. ▪ 두 개의 작품을 보여주며 어느 작품이 잘 그린 것인지 질문을 던지면서 소묘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킨다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전시 학습 확인				
전개	수업 내용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보며 소묘의 정의, 종류, 특징을 살펴 본다 ▪ 시대별 소묘 작품을 감상시키며 시대를 이해 하며 작품을 감상하도록 유도한다. ▪ 감상 기록지와 개념 학습지를 적으며 소묘 작품 감상과 소묘 이론을 정리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화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관심도를 높인다.
	학습 목표 제시 동기 유발				
정리	소묘의 개념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를 풀면서 소묘에 대하여 확인 학습을 한다. ▪ 프리핸드 드로잉 ▪ 주변을 정리 시킨다. ▪ 마무리 			학습지를 활용하여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을 병행한다.
	시대별 소묘 작품 감상				
	감상 기록지 작성				
	본시 학습 확인				
	차시예고				
	정리 및 인사				

나. 다양한 선을 통한 표현

소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선이다. 한 시간 동안 선만 긋는다고 생각하면 학생들은 흥미를 잃을지도 모르고 또한 너무 쉬운 수업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선을 그으려고 하면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생들의 반응 일 것이다. 자신이 없어서 짧은 선은 잇고 다듬어서 굵거나 연신 지우개를 놓지 못하고 계속 수정을 하는 학생들에게 선이란 재미있는 조형 요소이며, 아주 많은 선의 종류와 표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선을 표현해 보며 선이 가진 성격을 알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이다.

선이 가진 성격에 대하여는 우울하다, 지루하다, 활기차다, 날카롭다, 생기 있다 등 일반적인 감정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서술해 볼 수 있는데, 개별적은 선은 구성과 표현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함으로써 생명을 얻는다. 주요한 선도 있고 부수적인 선도 있지만 미술 작품 속에서는 모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³⁰⁾

우리는 고대 동굴벽화나 선사시대의 유적지 등에 그려진 선 또는 점으로 된 기호와 동물 그림들을 보게 되는 데, 이러한 선은 고대인들의 삶에서 발견한 인류 최초의 선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5세의 유아시기(난화기)에 손에 쥐는 힘이 생기면 필기구를 힘껏 쥐고 낙서하듯 선을 긋는다. 이것은 한 사람이 경험하는 최초의 선 긋기가 된다. 그 밖에 우리가 자주 접하는 자연이나 사물 속에, 혹은 도시의 곳곳에 수많은 선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호나 문자로 혹은 그림의 모습으로, 선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듯 선과 인간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³¹⁾

수업을 하는 동안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서로 다른 분위기의 음악을 들려주면 선의 표현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 똑같이 그려야 하는 수업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느끼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선에 다양한 모양에 재미를 느끼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30) Otto G. Ocvirk외, 광재은, 황진영 역 『미술의 언어』 아트나우, 2004, p.84.

31) 김미숙. “현존재의 시간성에 관한 회귀적 이미지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p.40.

<그림 3> 프리핸드 드로잉 1, 색지에
색연필과 콘테, 학생작품



<그림 4> 프리핸드 드로잉 2
도화지에 연필, 학생작품



<표 10> 프리핸드 드로잉 교수 · 학습 지도안

수업 명	다양한 선의 세계 (프리핸드 드로잉)		차시	2/6
학습목표	1. 다양한 선을 자신 있게 그을 수 있다. 2. 서로 다른 선의 감각을 익힐 수 있다.			
학습 형태	모둠 학습	학습자료	색연필, PPT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 유의점사항
도입	출결 확인 전시 학습 확인 수업 내용 안내 학습 목표 제시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결 확인 ▪ 전시 학습에서 배운 소묘의 기본 개념을 복습 시킨다 ▪ 학습 목표를 같이 읽으며 확인한다. ▪ 종이를 보지 않고 대상만 보고 그리기를 지도하여, 선을 긋는 것에 대한 소심함과 불안감을 해소하며 심리적인 이완적용 및 관찰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전개	프리핸드 드로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핸드 드로잉을 자유롭게 하도록 지도한다. 1. 다양한 질감의 선 그리기 2. 자유 곡선 그리기 3. 다양한 직선 그리기 		한 장의 종이마다 되도록 많은 선을 긋고 감각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4. 한 점으로 모이는 선 그리기 5. 나선형 선 그리기 6. 입체감이 드러나는 선 그리기	
정리	선의 느낌 발표 차시 예고 정리 및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이 좋은 선, 굵는 재미가 있었던 선, 부드러운 선, 날카로운 선, 멋있는 선 등 친구들이 그은 선을 보고 프리토킹을 하며 선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로 표현한다. ▪ 수비게 표현하는 입체 ▪ 주변을 정리 시킨다. ▪ 마무리 	

다. 쉽게 이해되는 입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모두가 3차원의 공간이며, 이 공간에 존재 하는 것도 ‘3차원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수많은 사물들 역시 각 물질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3차원 적인 것은’도 ‘도형적인 것’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도형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형은 ‘도’와 ‘형’의 결합으로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도’는 “그림을 피하다. 지도. 그리다. 다스리다. 고안하다.” 와 ‘형’은 “모양. 얼굴, 형상. 육체. 형체. 형상하다. 나타내다. 형편”이라는 글이 합쳐진 것이다.

현재의 일반적인 견해로써 도형은 기하학의 개념으로써 삼각형이나 사각형, 동그라미 등을 생각하기 쉬우나 한자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도형이 가지는 뜻은 ‘그림이나 모양, 얼굴, 형상, 지도 등을 형상하다. 나타내다’로 볼 수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소묘의 범주에 포함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에만 해도 그림의 주관하는 기관을 도화서라고 칭하였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도형의 의미는 협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동아 백과 사전에 제시된 도형의 개념은 선과 선이 만나는 ‘평면’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세잔느는 도형을 단순한 평면이 아닌 우리

를 둘러싼 세계로 보고 있다. 세잔느는 “자연의 모든 요소를 육면체나 구, 또는 원기둥형으로 보아야만 한다”³²⁾고 단언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또는 원구로 테두리를 찾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화에 있어서 도형은 기하학에서 사용하는 단순한 동그라미와 삼각형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동은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먼저 그리는지를 살펴보면 흔히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을 그릴 때에도 동그라미형인 머리에서 시작해서 점차 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형은 단순히 도형 그 자체가 아닌 그림에 있어서 형의 가장 초보적인 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 동그라미와 사각형, 삼각형은 학습자가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단순한 도형으로만 본다면 학습자에게 부담 없는 형태이다.

이러한 도형의 형태들을 조합하거나, 크기를 조절하여 대상을 표현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사물을 꼭 닮게 그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해방시킬 수 있으며, 대상의 이해를 분석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와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부딪히는 벽이 입체를 이해하고 그리는 것이다. 무엇을 표현하려고 해도 평면적인 그림이 되니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는 것이 어렵고 잘 그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식의 논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간단한 입체를 그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며 약간의 노력만 있다면 해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인데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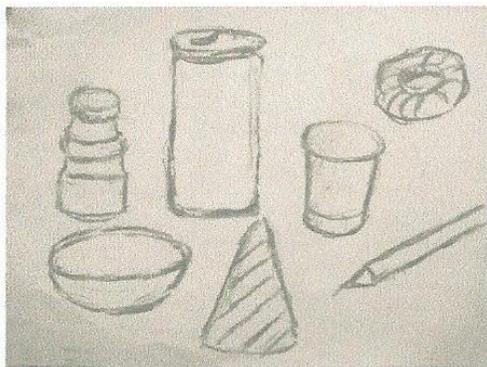
입체를 쉽게 표현하고 더불어 눈높이에 따른 형태의 변화와 투시도법을 더불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수업으로 복잡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학생들이 부담 없이 입체를 접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이다. 원기둥을 그리기 위하여 주변에 보이는 컵, 물병, 화장지등의 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양을 주변에서 찾고 원기둥에 이해를 돕는다. 소묘의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 구를 그리는데 막상 학생들에게 구를 제시하고 연필로 명암표현을 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동그라미만 그려 놓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막막해 한다. 하지만 교실에서 볼 수 있는 원의 형태를 누가 먼저 찾는지, 육면체의 형태를 누가 먼저 찾는지 게임을 하는 것처럼 흥

32) H.W 쟈슨 저, 이일 번역, 『서양미술사』 서울 :미진사, 1992. p.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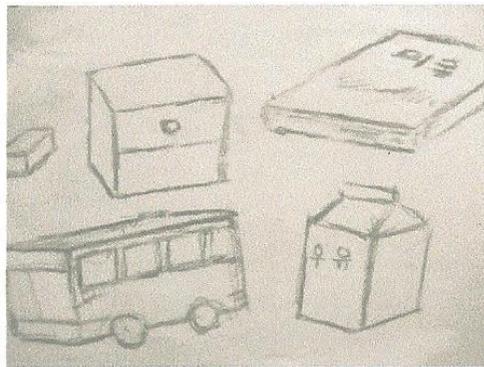
미를 가지게 한 후 소묘 활동을 시작한다. 원기둥과 육면체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활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물을 그리는 방법으로 이 수업을 하기 전에 그린 사물의 평면적인 표현과 비교를 하여 감상을 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비교 분석하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원기둥을 응용하여 사물 그리기를 한 것이다. 학생들은 석고를 그릴 때 보다 원기둥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입체를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림 6>에서는 육면체를 응용하여 사물 그린 것인데 원기둥 보다 훨씬 더 쉽게 주변에서 찾아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 원기둥 응용하여 사물 그리기,
학생 작품



<그림 6> 육면체 응용하여 사물 그리기
학생 작품



<표 11> 쉽게 그리는 입체 교수·학습 지도안

수업 명	쉽게 그리는 입체(눈높이와 투시도의 이해)	차시	3/6
학습목표	1. 원기둥을 응용하여 사물을 그릴 수 있다. 2. 육면체를 응용하여 사물을 그릴 수 있다.		
학습 형태	모둠 학습, 개별 학습	학습자료	연필, PPT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 유의점사

		항
도입	출결 확인 수업 내용 안내 학습목표 제시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결 확인 ▪ 본시 수업의 내용을 안내한다. ▪ 학습 목표를 같이 읽으며 확인한다. ▪ 건물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후 입체 표현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쉽게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며 호기심을 자극한다.
전개	입체 표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기등을 응용하여 그리기 · 눈높이 표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높이의 변화에 따른 원기등 그리기를 지도한다. 2. 원기등을 다양하게 많이 그린 후 그 모양에 맞는 사물을 그려 넣도록 지도한다. ▪ 육면체를 이용하여 그리기 · 3점 투시 표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점 투시도법에 따른 육면체 그리기를 지도한다. 2. 육면체를 다양하게 많이 그린 후 그 모양에 맞는 사물을 그려 넣도록 지도한다.
정리	본시학습 확인 차시예고 정리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그림을 다시 그린 후 본시 수업을 하기 전에 그린 그림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을 찾으며 입체 표현 방법을 확인한다. ▪ 배경을 주제로 그리기 ▪ 주변을 정리 시킨다.

라. 컴퓨터를 이용한 소묘

종이와 연필을 벗어나 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소묘 방법이다. 확장된 소묘의 수업지도 방안으로써 컴퓨터는 오늘날 미술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진정한 도구를 인정받고 있으며 컴퓨터를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기법과 창조적인 사용방향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흥미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아주 뛰어난 소프트웨어 상품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나와 있어 학생들은 더욱 소묘의 다양성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를 활용한 소묘 수업 방안으로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ICT 교육을 들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감상활동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표현활동에 ICT 교육이 활용되고 있다.

ICT의 개념은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을 합한 말로 정보 기기의 하드웨어 · 운영 ·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 생산 · 가공 · 보존 · 전달 · 활용하는 모든 방법으로서 자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재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적 지식과 관련한 학문이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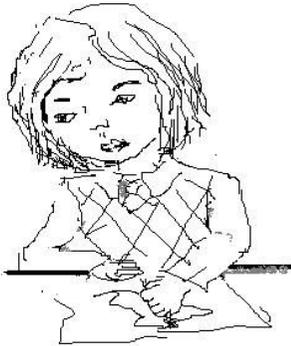
교육과정에서 ICT 활용 교육의 필요성은 유연하고 다양한 학습 활동의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및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신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동기 유발을 통한 능동적 학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확장된 소묘의 지도 방안으로 교육의 장 확대를 위해서 ICT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ICT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도상 유의점으로 첫째, ICT를 활용한 학습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와 학생이 정보 통신 기술을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사는 학생들의 ICT를 다루는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학습 유형을 제시해야 하며, 학교의 시설 및 여건에 맞는 학습방법과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를 준비하는 등 ICT를 활용한 학습의 실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미지 편집을 할 때 계획된 시간보다 지연 될 수 있으므로 수업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묘수업에 ICT를 활용할 경우 문제점으로는 컴퓨터는 물감이나 종이 및 각종 재료에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질감의 맛을 느낄 수 없다. 그리고 재료 자체에서 느끼는 풋풋한 정감은 나타낼 수 없으므로 자칫 기계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작품의 크기를 손으로 작업하는 것과 같은 크기로 할 수 없으며 학생들의 ICT를 다루는 수준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학습 활동을 할 때 ICT 기능이 부족한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33) 위유열, 『미술이론』 도서출판 열린교육, 2009. p235.

<그림 7> 그림판을 이용하여 그리기 1,

<그림 8> 그림판을 이용하여 그리기 2



<표 12> 컴퓨터를 이용한 소묘 교수 · 학습 지도안

수업 명	컴퓨터를 이용한 소묘(사물의 배경과 공간 인식)		차시	4/6
학습목표	1. 그림판을 이용하여 사물을 표현한다. 2. 컴퓨터의 사용 능력의 향상 및 표현력을 기른다.			
학습 형태	모둠학습	학습자료	ICT, 컴퓨터	
단계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 유의점사항
도입	출결 확인 전시학습 확인 수업 내용안내 학습 목표 제시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결 확인 ▪ 전시 학습의 사물 그리기를 확인 학습한다. ▪ 본시 수업의 내용을 안내한다. ▪ 학습목표를 같이 읽으며 확인한다. ▪ ‘그림판을 사용해 본적이 있는가?’라는 발문을 하여 컴퓨터를 활용해 표현활동을 할 수 있다. 		
전개	배경 그림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1조로 모둠을 나눈다 ▪ 그리는 순서와 유의사항을 지도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림판에 사용하여 다양한 선을 표현하기 2. 배경을 칠해보기 3. 다양한 효과를 실험해 보기 		시간을 미리 계획하여 그 리도록 지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 역할을 하는 친구는 그리는 사람이 원하는 데로 포즈를 취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그리는 사람은 완성하도록 시간 조절을 하여 그린다. ▪ 역할을 바꾸어서 다시 그린다. 	지워서 그린 후 다시 한번 다듬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리	<p>작품 감상</p> <p>차시 예고 정리 및 인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려진 작품을 감상하며 평소에 그리던 인물화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 하며 그림판에 그린 형태를 보는 것에 대한 수업 정리를 한다. ▪ 지워가며 그리기 ▪ 주변을 정리 시킨다. ▪ 마무리 	

마. 지워가며 배우는 명암 표현

학생들은 명암과 질감의 표현을 어려워한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만든 수업이 지워가며 그리기 수업으로 소묘를 하되 채색 도구가 아닌 도구를 이용하여 명암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인지 지우는 것인지 잘 몰라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수업이다. 윤곽선 이주의 형태 잡기는 잘 하였으나, 이 후 명암 표현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는 난감해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암의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수업을 명암이 잘 드러나지 않던 손그림과 비교하며 이제까지 사물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명암을 수업 후에는 쉽게 발견하는 능력이 생길 수 있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목탄을 배경칠을 먼저 하고 지우기로 수업을 할 때는 적은 시간을 들여서 양감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성 작품들을 감상하며 많은 학생들이 흡족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업을 시작할 때 그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면 재료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지우개질을 어려워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료의 사용방법과 유의사항

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목탄의 재료는 버드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를 탄화시켜 만드는데, 농담 표현이 자유롭고 부드러워 미묘한 색조와 다양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쉽게 지워지므로 표면에 요철이 있는 전용지를 이용하고, 지울 때에는 전용지의 곁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빵이나 지우개를 사용한다. 또한 천이나 손가락으로 문질러 표현하고, 부착성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완성된 작품은 정착액을 뿌려서 보관을 해야 한다.

빛은 물체의 존재를 분명하게 하고 밝음과 어둠을 만들어 낸다. 회화에서 물체의 영상을 입체로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조각가에게는 형태를 만들어 내는 데 사용하는 매체가 된다. 34)명암은 대상의 공간적 특성을 인식하여 표현하는 수단이다. 명암은 빛에 의하여 생기는 대상의 밝기와 어둠기를 말한다. 서양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 명암법이 과학적으로 정립되었고, 이를 카라바조가 명암 대조법으로 발전시켰으며 렘브란트에 의해 발전되었다. 특히 렘브란트는 외부 세계에 대한 자신의 직관적인 힘의 관계에 의해 자신만의 법칙을 만들어 내고 인물이 배경 모두는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지워가며 그리기를 통해 밝음과 어둠을 만들어 내어 명암표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9> 손 그리기, 목탄, 학생작품



<그림 10> 지워가며 손 그리기, 학생작품



34) 권연정, '관찰 표현력 신장을 위한 크로키 지도 연구 : 초등학교 5, 6학년 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주대 교육대학원, 2007.p.39

<표 13> 지워가며 그리기 교수 · 학습 지도안

수업 명		지워가며 그리기(명암의 이해)	차시	5/6
학습목표		1. 손에서 명암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 2. 손의 명암을 찾아서 그림에 표현할 수 있다.		
학습 형태		학습	학습자료	PPT
단계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 유의점사항	
도입	출결 확인 전시 학습 확인 수업 내용 안내 학습 목표제시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결 확인 ▪ 전시 학습의 배경 그리기 수업을 복습한다. ▪ 본시 수업의 내용을 안내한다. ▪ 학습 목표를 같이 읽으며 확인한다. ▪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명암의 표현이었음을 이야기하며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과 약간의 명암표현으로 그림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짐을 이야기하며 기대를 갖도록 유도한다. 		
전개	손을 보고 그리기 지워 가며 명암 표현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손을 보고 그리기 : 평소에 그리던 대로 10분의 시간을 주고 선으로 자신의 손을 그리도록 지도한다. ▪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그리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이에 목탄으로 배경 칠하기 2. 밝은 부분을 단계별로 지워가며 그리기 3. 세부 내용 표현하기 ▪ 명암이 뚜렷이 생기는 위치에서 손을 관찰하도록 지도한다. ▪ 눈을 가늘게 뜨고 명암을 관찰하도록 지도한다. 	손에서 명암을 찾을 수 있도록 빛이 강한 자리에서 그리도록 지도한다.	
정리	본시 학습 확인 차시 예고 정리 및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감상하며 지워가며 그리기와 그냥 선으로 그리기의 차이점을 이야기 한다. 잘 표현된 작품을 보고 어떤 점이 그런지 이야기하며 확인 학습한다. ▪ 마음으로 그리기 ▪ 주변을 정리 시킨다. ▪ 마무리 		

바. 자동기술법을 활용한 창의력 향상 표현

이 수업은 이제까지 해왔던 수업의 마무리이면서 학생들에게 소묘가 그림을 그리는 기초 과정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의 완전한 독립 장르임을 체험으로 느끼게 해주는 과정이다. 자동기술법이란 신미적인 선입관이나 기성의 표현 기술을 떠난, 무의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표현 행위를 말한다. 시인이자 평론가인 ‘앙드레 브르통’³⁵⁾은 초현실주의의 이름 아래 무의식을 계기로 한 시나 그림이야말로 진실의 과정이 기록되는 것임을 주장했다. 초현실주의 화가 중에서도 에른스틴³⁶⁾,아르프, 미로 등이 이 수법에 의해서 잠재의식의 세계를 파헤쳤고, 이것은 폴록에 의해서 대표되는 액션 페인팅 화가들에게 이어졌다. 자동기술법은 초현실주의의 중요한 기법으로 어떤 의식이나 의도 없이 무의식의 세계를 무의식적 상태로 대할 때 거기서 솟구쳐 오르는 이미지의 흐름을 그대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원래 의사였던 앙드레 브로통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원용하여 임상심리학에서 정신병자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내면의 소리를 시에 응용하여, 가능한 빠른 속도로 지껄이는 독백이나 사고를 비판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기록한 수법으로서 소묘 수업에 자동기술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내면에 소리에 귀 기울려 표현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하여 추상 소묘에 대하여 배우고 친구의 작품을 보며 제목을 맞추는 동안 그림이라는 것이 그냥 감상하는 아름다운 어떤 것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 소통을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수업이기도 하다.

추상 표현은 사물의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점·선·면·색 등 순수한 조형 요소로 변형하거나 단순화시켜 표현한다. 추상문양은 선사 시대부터 나타났으나, 현대적 의미의 추상은 후기 인상주의 세잔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이론은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에 의해 정립되었다. 칸딘스키를 선구로 하는 서정적 추상인 뜨거운 추상이, 몬드리안을 선구로 하는 기하학적 추상인 차가운 추상이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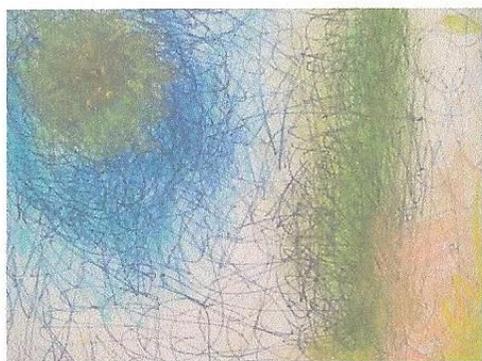
35)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 1892,2,18~1966,9,28) : 20세기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이론가

36) 에른스틴(Max Ernst, 1891.4.2~1976.4.1) : 독일의 화가·조각가.1924년 이후로는 초현실주의에 적극 참여했다. 프로이트 적인 잠재의식을 화면에 정착시키는 오토마티즘을 원용했지만, 1925년에 프로타주를 고안하여 새로운 환상회화의 영역을 개척했다.

현대 미술에서 추상 표현의 업적은 심상의 세계를 시각화함으로써 표현의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데 있으며, 더욱이 다양한 기법과 재료의 도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추상은 처음부터 구체적인 형상이 없어 주관적 의식에 따라 화면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³⁷⁾

이 수업을 하지 전에 프리핸드 드로잉 수업에서 다루었던 여러 선의 느낌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과 다양한 소묘 재료 중에서 자신이 주제로 정한 작품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재료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주제에 맞는 표현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목을 미리 밝히는 것이 아니라 수업 후 감상 과정에서 모둠별로 맞추기를 하면서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읽는 것이 수업의 핵심이다. 추상 소묘는 그리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는 수업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롭게 재료를 긁고, 지우고, 칠하여 느끼는 그림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의 효과가 있는 수업이 될 것이다.

<그림 11> 갈등, 파스텔 색연필 혼합, 학생작품



<그림 12> 즐거움, 크레파스 물감 혼합, 학생작품



37) 홍승희. “추상미술에서 자아의 소거와 흔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 대학원. 2009. p.48.

<표 14> 마음으로 그리기 교수 · 학습 지도안

수업 명		마음으로 그리기 (그림 주제 맞추기를 통한 추상 소묘의 이해)	차시	6/6
학습목표		1. 추상화가 어떤 작품인지 이야기 할 수 있다. 2. 추상 소묘를 감상하고 그 느낌을 이야기 할 수 있다. 3. 소묘를 통하여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		
학습 형태		학습	학습자료	PPT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 유의점사항
도입	출결 확인 전시 학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결 확인 ▪ 프리핸드 드로잉, 입체 그리기, 지워가며 그리기 등 전시학습에서 완성된 작품을 보며 간단한 감상 활동을 한다. 		전시학습에서 배웠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수업 내용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시 수업의 내용을 안내한다. ▪ 학습 목표를 같이 읽으며 확인한다. 		
	학습목표 제시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에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명암, 사실적인 형태, 입체감 외에도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 질문을 한다. 마음의 표현, 개성과 같은 답들을 강조하며 완성 작품의 제목을 가장 많이 맞춘 조가 승리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한다. 		
전개	추상 소묘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작품을 보고 그 느낌을 이야기하며 어떤 표현 요소에 의하여 그렇게 느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 추상 소묘 제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품의 제목을 마음속으로 정한다. 2. 구체적인 대상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주제가 드러나게 표현을 한다. 3. 서로 작품의 주제를 맞춰본다. 		추상소묘의 개념을 참고 작품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작품 감상 및 확산적 사고 유도 정리 및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를 통해 사실적인 형태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과 개성을 담은 추상작품도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작품에 응용될 수 있다고 수업을 마무리 한다. 	

IV. 결론

소묘가 표현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그 틀을 올바르게 만들어 학생들이 충분히 소묘 교육의 가치를 느끼고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미술 표현을 재현이나 모방이 아닌 개성이나 감정을 순수하게 표현하는 생활 속에서 미적 안목을 지니고 환경을 더 나아가 사회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대상 속에서 선, 면, 비례, 명암, 동세, 질감, 공감, 균형을 읽어내고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성을 존중하고 미적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있도록 추상적이며, 직관적인 소묘 표현이 첨가되고 감상과 표현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묘가 현대 미술에서의 영역과 흐름, 역사를 알아 실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럼으로써 소묘 교육이 미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 소묘교육의 중요성과 입시제도가 바뀌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고자 하는 미술인은 창의적인 인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 소묘는 대상을 사진과 같이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성실하게 관찰하여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실제감과 생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소묘의 교육적 효과는 기초 능력과 사물에 대한 감수성을 체득케 하여 기초 조형을 체험시키기에 적합한 형태라는 점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소묘를 중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묘에 대한 이론을 고찰해 보았고, 현재 중학교 소묘 교육의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미술 교과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고 이를 학습 활동을 통해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중학생들은 사물에 대한 표현에서 입체적인 덩어리인 양감과 명암을 보고 느끼는 관찰력이 부족하며, 단순한 선에 의한 1차원의 평면적인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소묘에서 생명력 있는 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명암 역시 1~2가지 톤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미술에 흥미와 관심이 소홀해 지며, 그림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중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물에 대한 입체감이나 사실적인 묘사 능력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데 있어서 ‘명암’은 중요한 표현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명암의 중요성과 그 표현 방법을 지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묘 활동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적인 묘사의 반복으로 기능만을 습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소묘의 표현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다루었다.

현재 우리는 단기간 동안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평가하여 예비 예술가를 길러내고 있다. 과연 이런 예술교육을 받고 배출되는 수많은 이들이 다 예술가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미술이 다른 어떠한 과목보다 창의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과목임을 인지하여 교사의 획일적인 지도 방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개인차에 맞춘 개별화된 수업방식으로 전환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학교에서는 소묘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관념적 시각 표현에서 순수한 시각으로 대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다양한 방법을 표현 영역에 도입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자신의 세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과서 >

- 김기숙외 『중학교 미술』.서울 : (주)미래엔컬처그룹
김정희외 『중학교 미술』. 서울 : 교학연구사
고승혜외 『중학교 미술』. 서울 :두산동아(주)
노영자의 『중학교 미술』. 서울 :(주)교학사
노부자의 『중학교 미술』.서울 : (주)지학사
서석례외 『중학교 미술』.서울 :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홍명섭외 『중학교 미술』. 서울 :(주)도서출판삼과꿈

< 단행본>

- 김기숙 외 저, 『 고등학교 미술 교사용 지도서 』 대한교과서, 2001
김경훈 외 저, 『소묘 마스터』 미진사, 2007
김복영, 『현대 드로잉의 탄생』 공간, 1970.
김삼량,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1992
김승수, 『연필소묘 1』 아트빔, 2009
김해성, 『현대미술을 보는 눈』 열화당, 1993
김정국, 『인체소묘기법과 미술해부학』 조형사, 2003.
권여현, 『드로잉의 세계』 제원, 1999.
노영자·이인숙, 『미술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2000
로웬펠트 · 브리테인 지음, 서울대학교 미술교육 연구회 엮음,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1993
이일, 『한국미술 그 오늘의 얼굴』 공문사, 1982.
이강일, 『소묘의 이해』 미진사, 1997..
임정기, 『기본 수업 모형의 이론과 실제』 청주: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1990
호서 M. 파라몽, 최기득 역, 『소묘』 미진사, 2001.
W. 타타르키브츠, 김채현역, 『예술 개념의 역사』 서울: 열화당, 1991.

< 학위논문 >

- 김은미. “단계적 드로잉 지도를 통한 보고 나타내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 교육대학원. 2002.
- 김세진. “중학교 소묘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미숙. “현존재의 시간성에 관한 회귀적 이미지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김영인, “중학교 미술과 수업에서의 재료 활용에 관한 실태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권연정, ‘관찰 표현력 신장을 위한 크로키 지도 연구 : 초등학교 5, 6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주대 교육대학원, 2007.
- 김미숙. “현존재의 시간성에 관한 회귀적 이미지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남학현, ‘필촉을 사용한 허상의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 대학원, 2008.
- 류수동. “ 소묘 지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박미혜, “ 중등미술 표현실기의 교수방법에 관한 연구 : 시각디자인 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 교육대학원, 2008.
- 안연희, “표현력 신장을 위한 형태지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1997,
- 이미희, “바람직한 소묘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이기순, “단계별 소묘 지도를 통한 표현력 향상에 관한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석사 논문, 1999
- 이병중, “소규모 농촌 초등학교에서 표현력신장을 위한 단계별 「소묘 및 색채」 지도 프로그램 적용사례“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 2009.
- 임승연. “상징과 표현으로서 회화” 석사학위논문, 신라대 대학원, 2009.
- 전귀복. “표현력 향상을 위한 소묘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지민숙,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인 소묘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 카톨릭 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홍승희. “추상미술에서 자아의 소거와 흔적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 대학원, 2009

